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2020년 4월 27일(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4. 27(월) 오전 10시40분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0. 4. 27(월)	담당부서	조선해양플랜트과
담당과장	윤진영 팀장 (044-203-4337)	담 당 자	이재익 사무관 (044-203-4332)

성윤모 장관, 조선업계 만났다…코로나19 관련 애로사항 청취

- 조선사 및 기자재업체 의견 수렴 위한 간담회 개최 -

□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4월 27일(월) 10시40분,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코로나19 관련 조선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주요 **조선사 및 기자재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함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4.27(월) 10:40~11:30, 엘타워(서울 서초구)
- **참석** : **(산업부)** 장관, 제조산업정책관, 조선해양플랜트과 팀장
  (업계)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사장(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회장),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사장, 남준우 삼성중공업 사장, 장윤근 STX조선해양 사장, 정대성 대한조선 사장, 이수근 대선조선 사장
  (협단체)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이병철 부회장, 한국조선해양기자재조합 강호일 이사장, 부산조선해양기자재조합 최금식 이사장
  (학계) 서울대학교 조선공학과 신종계 교수

○ **금번 간담회**는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전세계 선박 발주가 급감하는 등 **조선업계에 대한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어, **업계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조선업계 현황 】

□ ‘20년 3월 기준 국내 조선사의 총 수주잔량은 2,118만CGT로, **조선사들은 1~2년간 건조할 일감을 확보하여 정상 조업중**이나,

○ **‘20년 1분기 글로벌 선박 발주**는 코로나19 여파로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한 239만CGT에 그쳤으며,

○ 이 중 **우리나라는 40만CGT를 수주**하여 **자국발주·자국수주가 92만CGT에 달하는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상황 진단 】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조선업계도 **수요, 생산, 유동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우선, 코로나19 영향으로 **컨테이너선 물동량 감소, 주요 LNG 프로젝트 FID**(투자의사결정) **지연**으로 우리 주력 선종인 **LNG선, 컨테이너선 신조 발주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 코로나19 여파로 현재 356척, 100만TEU(전체의 약 5%)의 컨선이 운휴중이며, 향후 운휴 컨선이 최대 300만TEU까지 증가 가능성(출처 : Alphaliner)

* Exxonmobile(美) 모잠비크 ‘Rovuma LNG 프로젝트’ FID 연기(가스공사 참여)

○ **선주 감독관, 해외 엔지니어 입국 애로**로 **검사승인 지연, 시운전 차질** 등 발생시 **납기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 또한, **수주 감소, 조선업에 대한 여신 축소, 선주사에 대한 선박금융 위축, 인도 연기** 등이 장기화될 경우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음

* Heavy-tail 방식(선수금 10-10-10-10%, 인도시 60% 지급)으로 인해 선박 인도 연기시 조선사의 자금조달 스케쥴에 문제 발생 가능

【 간담회 주요내용 】

□ 이에 따라, 성 장관은 주요 대·중형조선사와 기자재업계를 대표하는 기자재조합이 모두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 전반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 성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다행히도 **조선사별로 1~2년치 일감을 확보**하고 있고, 조선업계가 코로나19에 잘 대응하여 **생산차질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유동성도 다른 업종보다는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

○ "다만 안심할 수는 없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전세계적인 불황이 심화**되면 2016년보다 더한 **수주절벽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하였음

□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4.23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조선산업에 대해 **제작금융 등 약 8조원이 지속 공급**되고 **선수금 환급보증도 적기 발급**되도록 하는 정부대책을 확정"하였고,

○ "조선업에 대해 **특별고용업종 지정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부품·기자재업체**들에 대해서는 **납품계약서를 근거로 제작비용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음

○ 그러나, "이 대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현장까지 전달이 되지 않거나,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기에 조선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미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강조하였음

□ 간담회에 참석한 조선소 및 기자재업계 **대표**들은 **정부에 ❶** 제작금융 등 **유동성 지원**과 **❷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규모 유지 및 적기발급 ❸ 외국 기술전문인력 입국절차 간소화** 등을 **요청**하였음

❶ (유동성 지원) 조선사들은 **제작금융 등 지원 확대, 선박 인도금 담보부 운영자금 대출** 지원 등을, **기자재사**들은 **제작금융 만기 연장 및 운전자금 공급 확대** 등을 요청

❷ (RG 지원) **선수금 환급보증 한도 확대 및 신속한 발급 지원 요청**

❸ (기타) 이 밖에도 **외국 기술전문인력 입국절차 간소화, 조선기자재 수출 해외거점기지 확대** 등을 요청

□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우선 제작금융, RG 지원 등 **업계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 '주요 주력산업 최근 동향 및 대응방안'(4.23, 위기관리대책회의, 관계부처 합동)

○ "대책이 충분치 않을 수도 있고 **현장까지 전달되지 않거나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내 산업·위기대응반**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이재익 사무관(☎ 044-203-43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